

〈2025 아시테지 K-PANY 창작꿈밭〉  
‘씨앗단계’ 선정결과 발표

‘2025 아시테지 K-PANY 창작꿈밭’ 씨앗단계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신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공식초청작 선정 결과

※ 가나다순 정렬

순번	선정자 / 선정단체	연락처(휴대전화) 뒷자리
1	나** * ***트	0976
2	트*****트	9776
3	강*늘	6254
4	김*정	7460
5	박*은	8374
6	손*지	8814
7	이*비	7073
8	이*하	2868
9	한*연	4862

■ 심사 총평

총평
<p>K-PANY 창작꿈밭 씨앗단계 두 번째 해에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주신 예술가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연극, 무용, 전통, 음악 등, 여러 장르와 다양한 연령의 창작자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솔직하고 정성스럽게 써주신 신청서에서 이 프로젝트를 향한 진심과 절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단체 신청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이 제출해주신 글 속에서 “다가오는 휴머니즘”이라는 주제 아래 진지한 고민과 질문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주제는 기술, 과학, 새로운 시대, 물질성, 기후변화 등, 이런 말들이 함의하는 막연한 미래적 사유를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들로 되돌아가자는 퇴보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복잡한 마음들이 오고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은 각자가 더 긴 호흡으로 찾아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p> <p>올해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지난해보다 더 고민되었습니다. 단순히 예술적 성과나 경험만 보고 참여자를 선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이번에 선정되지 못하셨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함께 고민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p>

합니다. 선정의 첫 번째 기준은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 얼마나 진지하고 깊은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신청서에 쓰인 내용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단순히 예술적 소통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넘어서 자기만의 언어로 그 고민의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창작꿈밭에서 지향하고 있는 주제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다가오는 휴머니즘’은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옳다고 믿어왔던 인간성, 휴머니즘에 의문을 품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은 지금 기성세대와는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서 던져진 주제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피부로 느끼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지를 읽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어린이청소년 창작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주제가 다는 아니지만, 당분간 좀 더 깊이 다뤄보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수개월 동안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이 주제에 더 깊이 스며들 수 있는 분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독립적인 창작자로서의 역량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경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창작꿈밭이라는 과정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잘 펼쳐 갈 수 있을지는 가늠해 보았습니다. 물론 보내주신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선정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논의와 고민 끝에 일곱 명의 개인 창작자와, 두 팀의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혹시 이번에 선정되지 못하셨더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호기심과 열정을 잘 이어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씨앗단계에 함께 하게 된 예술가분들은 즐겁게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잘 완주하시길 기대합니다.

**K-PANY 창작꿈밭 프로그램 디렉터**

**배요섭**